

A Study of Buddhist scriptures folktales in 『Konzakumonogatarisyu』

Moon, Myung-Jae

Dep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word : folk tale, Buddha, Jataka, transmission,
Buddhist scriptures

CONTENTS

- I. Introduction
 - II. A rabbit in the moon
 - III. A monkey's liver
 - IV. A country with a practice of
abandoning old people
 - V. Conclusion
- Reference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meaning of transmiss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three Buddhist scriptures contained in 『Konzaku』. As these stories are familiar to us, there are some shared idea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the contents. The main characters of 'a rabbit in the moon', 'a monkey's liver' or 'a country with a practice of abandoning old people' indicate Buddha's sacrifice and wise actions in his past life. However, such stories were included in 『Konzaku』 as folk tales without the features of Jataka. That's because, among the Buddhist scriptures, the stories which people were interested in have been handed down. At the phase of the scriptures being included in 『Konzaku』, such stories became more secularized apart from the intention of Buddhist scriptures.

Received : 24 August, 2015.

Revised : 01-30 September, 2015.

Accepted : 16 October, 2015.

† Corresponding author : Moon, Myung-Jae, 130-791,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Dep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el : +82-2-2173-3185 HP : +82-10-9018-0445

Fax : +82-2-2173-2297 E-Mail : moonmj@hufs.ac.kr

『今昔物語集』의 불전설화(佛典說話) 고찰

문 명재(文明載)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 중 심 어 : 설화 부처 본생담 전승 불전

목차

- I. 머리말
 - II. 달 속의 토끼
 - III. 원숭이의 간
 - IV. 노인을 버리는 나라
 - V. 맺음말
- 참고문헌

요약

본 논문은 일본의 대표적 설화집 『今昔(곤자쿠)』의 천축(天竺, 인도)편에 실린 세 편의 불전 설화를 중심으로 전래와 변용 과정에 담긴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모두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내용의 설화로, 내용면에서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발상이 존재한다. 달 속의 토끼, 원숭이의 간, 노인을 버리는 나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석가여래가 전생에 자신을 희생하거나 현명한 행동을 한 것이 설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今昔(곤자쿠)』 안에서는 불교적 색채가 탈색되어 전생담(본생담)의 성격은 보이지 않고 세속 설화로서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화의 특성이 그러하듯이 불전(佛典)으로 전해지던 설화 내용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가장 흥미롭고 관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今昔(곤자쿠)』에 수록되는 단계에서는 이미 불전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불전설화의 세속화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자 : 2015. 08. 24.

심사기간 : 2015. 09. 01.-09. 30.

게재확정일 : 2015. 10. 16.

교신처 : 문명재,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Tel : +82-2-2173-3185

HP : +82-10-9018-0445

Fax : +82-2-2173-2297

E-Mail : moonmj@hufs.ac.kr

1. 머리말

『今昔物語集(곤자쿠모노가타리슈)』(이하 『今昔(곤자쿠)』로 약칭함)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일본 최고의 설화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작품으로, 작자는 미상이고 성립은 대략 1120년~1150년으로 추정된다. 전 31권(이 가운데 8 18 21권은 결권)에 1100여화의 설화를 수록하고 있는 이 작품은 방대한 설화의 수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묘사된 세계의 다양함과 정연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 대작이다. 작품 전체는 제1권에서 제5권까지의 천축(天竺, 인도), 제6권에서 제10권까지의 진단(震旦, 중국), 제11권에서 제31권까지의 본조(本朝, 일본), 이와 같이 세 편으로 나뉘고 각 편의 설화는 다시 불법화와 세속화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성상의 특징이 의미하는 것은, 인도 중국 일본의 삼국은 당시 지리적 공간적으로 일본인에게 인식되고 있던 전 세계이고, 불법과 세속 또한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의식 세계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말하자면 전 세계상을 망라한 이야기 모음집을 편찬하려고 한 것 같다. 이 가운데 고대 한국에 관한 설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소수화에 등장하는데 중국의 일부처럼 여겨진 면이 있고, 이는 고대 한국과의 경쟁심리가 작용한 결과로서 의도적인 배제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전후에 성립하는 작품에서도 삼국이라 하면 으레 인도 중국 일본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나타난다.¹⁾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 고찰 대상으로 하는 불전설화(佛典說話)는 천축(天竺, 인도)편에 실린 이야기로, 제1권에서 제5권까지의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1권(38화) : 처음 8화는 석가의 잉태(천상계에

서 인간계로 내려와 정반왕의 부인 마야부인의 태내에 잉태됨) 탄생(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출생) 사문유관(석가가 왕자시절 왕궁 밖으로 나가 노 병사의 3고와 출가지를 보고 충격을 받음) 출가(왕궁을 나옴) 고행(여러 스승을 찾아 고행을 함) 항마(깨달음을 방해하려는 악마를 항복시킴) 성도(보리수 아래서 완전한 부처의 깨달음을 얻음) 초전법륜(처음으로 설법을 함)의 순으로 되어 있어, 석가가 이 세상에 탄생하여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각 설화는 독립된 것이지만 내용적 시간적으로는 연속된 불교 탄생의 이야기이다. 제9화 이후는 시간보다도 내용에 중심을 둔 배열로, 포교를 시작한 석존과 불제자들에 대해 바라문교도 등의 의도들이 가한 박해와 여기에 맞서 이겨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시킨 이야기, 석존의 아들 라고라를 비롯한 친족들의 출가담, 수달장자에 의한 기원정사 건립 등, 재가신자들의 귀의를 내용으로 한 설화가 이어진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제1권은 불교의 창시에서 교단의 성립에 이르는 초기불교사를 이야기한 설화로 배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2권(41화) : 처음 2화는 석존의 부모 이야기로, 제1화는 석존이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 정반왕의 이야기이고 제2화는 사후 도리천에 왕생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석존이 천상계에 올라가 설법한 이야기이다. 이들 설화를 포함해서 제2권은 석존의 교화설법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석존의 서거나 유리왕에 의한 석가족 대학살 등 각종 불경에 등장하는 석존생존시의 대사건이 배열되어 있어 제1권에 이어 석존전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 제3권(35화) : 제27화까지는 불제자들의 일화, 용 금시조 앵무 등의 축생도와 불법, 각종 전생담과 변신담, 석존 또는 불제자에 대한 공양담, 불법을 들은 공덕담 등, 석존 생존 중의 불법에 의한 구제담이 실려 있고, 제28화 이후는 석존

1) 日本大辭典刊行會, 『日本國語大辭典』, 小學館, 1980 에 의하면, 삼국(三國)은 인도 중국 일본의 세 나라 또는 전 세계의 미로도 쓰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三國一(산고쿠이치)」는 인도 중국 일본의 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것의 의미로 쓰였다고 되어 있음.

의 열반과 입관 다비 분골을 이야기한 설화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제1권의 석가탄생에서 도를 이루고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석존 일대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4권(41화) : 석존 열반후의 불교설화를 모은 것인데, 제22화까지는 가섭이나 아난에 의한 경전의 결집과 라고라와 파사닉왕 등 생전의 석가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아유왕(아쇼카왕) 시대를 중심으로 한 석가 열반 이후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고, 제23화 이후는 대천 용수 제과 무착 세친 호법 청변 등 카니카와 시대 이후 사람들의 이야기와 부처와 경전의 영험담, 저승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5권(32화) : 제1권에서 제4권까지가 천축의 불교설화를 모아놓은 데 대해 제5권은 천축의 세속담으로 되어 있다. 제1화에서 제6화까지는 국왕 왕후담, 제7화에서 제12화에는 석가의 본생담, 제13화에서 제29화에는 본생담의 성격을 지닌 동물담, 기타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1화와 제2화는 승가라국(僧迦羅國)과 집사자국(執師子國)의 건국설화로, 이 두 나라는 실은 이름만 다르지 한 나라인데 지금의 스리랑카를 가리킨다. 모두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제1화는 석존의 본생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제13화 이후에 실린 ‘자타카’라고도 불리는 석가의 본생담은 석존이나 기타 인물들의 과거세를 배경으로 한 전생담이므로 본래는 불교설화에서 출발했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세속설화로 탈바꿈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담의 경우는 『현우경(賢愚經)』 등의 불경을 출전으로 하고 있고 본생담의 성격이 남아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데, 원숭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고기를 찢어 독수리에게 준 사자(제14화), 짐승들의 왕이라 속이고 사

자의 등에 탄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포효소리에 기겁하여 죽고 만 여우(제20화), 학에게 부탁하여 하늘을 날아가게 되었지만 약속을 저버리고 말을 하는 바람에 추락한 거북(제24화), 원숭이를 속여 간을 뺏으려다 실패한 거북(제25화) 등, 옛날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친숙한 이야기도 보인다.

이처럼 천축(天竺, 인도)편의 설화는 석존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인데, 본 고찰에서는 제5권에 실려 있는 세 설화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고찰 대상의 세 설화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내용으로, 그 유래와 의미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은 『수ष(곤자쿠)』라는 작품의 이해뿐만 아니라 불교 세계의 이해 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찰 대상 설화는 본문 전체를 번역하여 인용하였는데, 자료로서의 용도도 있을 것이므로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하겠다.

II. 달 속의 토끼

앞에서 천축(天竺, 인도)편 개요에서 언급했듯이 제5권은 세속 설화를 모아놓은 것인데, 그 가운데 제13화는 「三獸行菩薩道, 兎燒身語(세 마리 짐승이 보살도를 행하고 토끼가 몸을 태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먼저 설화 전문을 번역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인도에 토끼와 여우와 원숭이의 세 마리 짐승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 진실한 마음을 일으켜 보살도를 행하고 있었다. 각자 마음속으로 ‘우리는 전세에 죄와 업장이 무거워 비천한 짐승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전생에 살아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재물을 아까워하여 남에게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죄가 깊어서 지옥에 떨어져 오랜 동안 고통을 받고도 남은 업보로 이렇게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이 몸을 버려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자기보다 더 먹어 늙은 자를 부모처럼 받들고 나이가 자기보다 조

금 더 먹은 자를 형처럼 생각하고 나이가 자기보다 조금 덜 먹은 자를 동생처럼 불쌍히 여기며 자기 일을 버리고 남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자 제석천이 이들을 보시고 ‘이들은 짐승의 몸이라 해도 기특한 마음씨를 지녔구나. 하지만 사람의 몸을 받았다 해도 혹은 생명 있는 것을 죽이고 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혹은 부모를 죽이고 혹은 형제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혹은 웃음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혹은 사랑하는 모습 속에도 분노의 마음이 깊다. 하물며 이런 짐승들은 진실한 마음이 깊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니 한번 시험해 보아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갑자기 기운 없고 지쳐서 어찌할 도리 없는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이들 세 마리 짐승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는 나이 먹고 늙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너희들 세 마리 짐승은 나를 부양해라. 나는 자식도 없고 집도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 세 마리 짐승은 자비로운 마음이 깊다고 들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세 마리의 짐승들은 “이것은 우리들이 원래 바라던 바이니 즉시 모시기로 하자.” 라고 말하고,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가 밤 감 배 대추 감귤 굴 다래 동백 멸꿀 으름 등을 따서 가져오고 마을에 나가서는 오이 가지 콩 팥 동부 조 피 수수 등을 가져와서 마음껏 먹게 했다. 여우도 묘 옆의 오두막 근처에 가서 사람들이 제사지내고 놓아둔 떡과 비빔밥 전복 가다랭이 등의 생선들을 가져와서 마음껏 먹게 하니, 노인은 이미 배가 불렀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노인이 “이 두 마리 짐승은 정말 자비심이 깊으니 이들은 이미 보살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하니, 토끼는 분발하는 마음을 일으켜 등불과 향을 들고 귀는 높이 세우고 등은 구부리고 눈은 크게 뜨고 앞다리는 짧게 웅크리고 항문은 크게 벌리고 동서남북으로 구하러 다녔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 그러자 원숭이와 여우와 노인이 한편으로는 놀리고 한편으로는 깔보고 웃으면서 힘내라고 했지만 능력이 미치지 못하자, 토끼가 ‘나는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산과 들로 다녔지만 산과 들은 무서워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거나 다른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내 뜻과는 달리 아무 소용없이 목숨을 잃게 될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러지 말고 나는 이제 이

몸을 버려서 이 노인에게 먹게 하여 영원히 이 생을 떠나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노인에게 가서 “이제 저는 나가서 맛있는 것을 구해올 테니 나무를 주워서 불을 피우고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원숭이는 나무를 주워왔고 여우는 불을 가져와 붙이고 흑시나 하며 기다리고 있는 데 토끼가 가진 것이 없이 돌아왔다. 이 때 원숭이와 여우가 이를 보고 “너는 도대체 뭘 구해 온 것이냐?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나무를 주워 불을 피우게 해서 너는 따뜻하게 불을 쪼려고 한 것이지? 못된 녀석.” 이라고 말하자, 토끼는 “나는 먹을 것을 구해 오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몸을 구워 잡수십시오.” 라고 말하더니 불 속으로 뛰어들어 타 죽었다.

그 때 제석천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토끼가 불에 뛰어든 모습을 달 속에 옮겨놓았는데, 이것은 널리 일체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달 속에 담아둔 것이다. 달 표면에 구름처럼 있는 것은 이 토끼가 불에 타 때 난 연기이고, 달 속에 토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토끼의 모습을 말한다. 모든 사람들은 달을 볼 때마다 이 토끼를 떠올려야 한다.

우선 이 이야기를 읽으면 「달 속의 토끼」를 연상하게 되는데, 둥근 달을 보면서 계수나무 옆에서 떡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를 떠올리는 것은 우리만의 고유한 발상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동일한 발상은 일본인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토끼야 토끼야 무얼 보고 뛰느냐, 보름밤 둥근 달 보면서 뿔단다.’라는 가사의 동요가 江戸(에도)시대(17세기 초에서 19세기중엽) 때부터 전해지고 있고 이후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걸로 보아 일본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친숙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달 속의 토끼」라는 발상의 공유(共有)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 해결의 단서는 바로 『今昔(곤자쿠)』의 설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850년 전에 쓰인 일본의 설화집 안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달을 보면서 토끼를 연상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우리가 달 표면의 구름처럼 어두운 부분은 바로 토끼가 몸을 태울 때 난 연기이고 살신성인의 가혹한 토끼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 제석천이 달 속에 옮겨 살게 했다고 하는 등, 매우 그럴듯하면서도 구성력이 뛰어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조사해 보면,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일본에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잡보장경(雜寶藏經)』 『구잡비유경(舊雜譬喻經)』 『생경(生經)』 『육도집경(六度集經)』 『경률이상(經律異相)』 『보살본연경(菩薩本緣經)』 『법원주림(法苑珠林)』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등 여러 불교 경전 및 관련서적에 실려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

그래서 한 예로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와 비교해 보니, ‘是如來修菩薩行時, 燒身之處.(이것은 석가여래가 보살행을 닦을 때 몸을 태운 것이다.)’³⁾라는 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고, 『경률이상(經律異相)』은 이야기의 마지막을, ‘佛言, 時兔王者則我是. 仙人者定光佛是. 出生經第三第四卷. 又出兔王經.(부처가 이르기를 그 때의 토끼가 바로 나로다. 선인은 정광불이다. 생경 제3제4권에 나오고 또한 토왕경에도 나온다.)’⁴⁾ 라는 구절로 맺고 있다.

『경률이상(經律異相)』에 나오는 선인(仙人)이 정광불(定光佛)이라고 한 것은 『수ष昔(곤자쿠)』의 제석천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설화는 석가여래가 해탈하여 부처가 되기 전, 전생에 토끼의 몸으로 보살행을 닦던 때의 이야기로, 「달 속의 토끼」 이야기는 부처의 전생담(또는 본생담(Jātaka)라고도 함)이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즉 한국과 일본이 「달 속의 토끼」라는 공통된 발상을 갖게 된 배경에는 바로 불교

가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전래라고 하면 추상적인 석가모니의 사상이나 가르침의 전래를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불교의 전래는 추상적이라기보다 구체적이다. 즉 불교가 전해지는 실체는 불법승(佛法僧)의 삼보, 다시 말해 불상과 경전과 승려라는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 한국 일본을 하나의 전파 경로로 하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서 「달 속의 토끼」라는 같은 발상을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달 속의 토끼」 이야기는 석가여래가 전생에 토끼의 몸으로 보살도를 닦던 때의 이야기로 여러 경전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이 이야기를 담은 불경도 전해졌기 때문에, 불교 전래에 있어 같은 경로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에서 달을 보면서 토끼를 떠올리는 발상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수ष昔(곤자쿠)』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달 속의 토끼」 이야기에는 이미 불교적 색채가 전혀 나타나있지 않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달 속에는 토끼뿐만 아니라 계수나무와 떡방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어디에 연유한 것일까?

중국에는 옛날부터 태양에는 까마귀가 살고 달에는 두꺼비가 살고 있다는 속신(俗信)이 있었고 『초사(楚辭)』에는 달 속에 토끼가 살고 있다는 구절이 보이는데, 달에 계수나무가 있고 그 밑에 신선이 살고 있다는 생각은 위진 시대 이후 널리 퍼지게 된다. 그리고 신선은 달 속의 계수나무 아래서 선약(仙藥)을 쪼고 있다고 믿어졌는데, 계수나무 그 자체가 바로 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는 선약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750년 전후에 편찬된 『萬葉集(만요슈)』라는 시가집에 달 속의 계수나무를 읊은 노래가 실려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옛날부터 달 속의 존재에 대한 여러 유사한 발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⁵⁾

2) 山田孝雄 외 3인 校注, 『수ष昔物語集(一)』(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84 p.365 의 주석 참조.

3) 芳賀矢一 纂訂, 『攷證 今昔物語集 天竺震旦部』, 富山房, 1976, pp.424-425

4) 芳賀矢一 纂訂, 『攷證 今昔物語集 天竺震旦部』, 富山房, 1976, pp.425-426

그러므로 「달 속의 토끼」 이야기에 계수나무 아래서 선약을 쪼고 있는 신선의 모습이 투영되면서, 둥근 보름달 안에서 떡방아를 쪼고 있는 토끼 이야기를 낳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III. 원숭이의 간

『今昔(곤자쿠)』 제5권 제25화에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설화가 실려 있는데, 「龜, 爲猿被謀語(거북이 원숭이에게 속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설화로, 우선 원문을 번역 인용한 후에 그 의미를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옛날 인도의 바닷가에 산이 하나 있었고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 근처 바다에는 두 마리의 거북이 살고 있었는데 부부였다. 어느 날 아내거북이 남편거북을 향하여 “나는 당신의 아이를 회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배에 병이 있어서 틀림없이 낳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에게 약을 구해 먹여 주면 나의 몸이 편안해져 당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거북이 대답하기를 “무엇을 약으로 쓸 수 있겠소?” 라고 물었더니 아내거북이 “내가 듣자하니 원숭이의 간이 배의 병에는 최고의 약이라고 하더군요.” 라고 답했다.

남편거북은 바닷가로 가서 그 원숭이를 만나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은 무엇이든 풍족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원숭이가 “항상 부족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거북이 말하기를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는 사계절 나무열매가 끊이지 않는 넓은 숲이 있소. 그러니 당신을 그곳에 데려가 마음껏 먹게 해주고 싶소.” 라고 했더니, 원숭이는 속이는 줄 모르고 기뻐하며 “아하 내가 가겠소.” 라고 말하자, 거북이 “그렇다면 자 갑시다.” 라고 말하고 거북의 등에 원숭이를 태우고 데려갔다. 그리고 거북이 원숭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실은 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배에 병이 있소. 그런데 뱃병에는 원숭이의 간이 약이 된다고 들어서, 당신의 간을 약에 쓰려고 속여서 데리고 온 것이오.” 라고 했다.

그러자 원숭이는 “당신은 몹시 아쉽게도 나를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군요. 아직 못 들었나본데 우리 원숭이들은 원래 몸속에 간이 없소. 간을 근처의 나무에 걸어 두었기 때문이오. 당신이 처음부터 말했더라면 내 간 뿐만 아니라 다른 원숭이들의 간도 모두 얻어 드렸을 텐데... 설령 나를 죽인다 해도 몸 안에 간이 있어야 쓸모가 있는 것 아니겠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거북은 원숭이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다면 자, 같이 돌아가서 간을 가져다 내게 주시오.” 라고 했더니 원숭이는 “그건 아주 쉬운 일이오. 원래 살던 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아니오.” 라고 말하자 거북은 이전처럼 원숭이를 등에 태우고 원래 장소에 도착했다.

그러자 원숭이는 거북의 등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서 멀리 나뭇가지 끝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거북에게 말하기를 “거북아 어리석구나. 몸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간이 어디 있겠니?” 라고 했더니 거북이 ‘아차 속았네.’ 라고 생각했지만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나무 위의 원숭이를 올려다보며 뭐라 할 말이 없자 “원숭이 너도 바보로구나. 어떤 바다 밑에 나무열매가 있겠니?” 라고 말하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옛날부터 짐승은 이렇게 어리석었다. 사람도 어리석은 자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라고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설화 역시 우리에게 「토끼의 간」이란 이야기로 친숙한 내용이다. 「토끼의 간」은 판소리 수궁가나 별주부전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려본 바와 같이 일본의 설화집 『今昔(곤자쿠)』에는 원숭이를 주인공으로 한 내용으로 실려 있다. 이 설화 역시 그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면 『생경(生經)』 『육도집경(六度集經)』 『경률이상(經律異相)』 『법원주림(法苑珠林)』 등의 불전과 만나게 되고, 원숭이는 부처의 전생의 모습, 즉 석가모니의 본생(本生)이라고 되어 있다.⁶⁾

5) 池上洵一, 『今昔物語集の世界 -中世のあけぼの-』, 筑摩書房, 1983, pp.142-168

6) 山田孝雄 외 3인 校注, 『今昔物語集(一)』(日本古典文學

우리의 귀토설화(龜兔說話) 또는 판소리 수궁가와도 비교가 되는데, 수궁가에서는 병이 난 것은 용왕의 딸이고, 거북도 등장하지만 용왕의 신하 중의 하나일 뿐으로, 토끼를 데려오는 역할의 주인공은 별주부, 즉 자라다. 수궁가가 판소리로서 완성되는 것은 18세기에 들어서이므로 시기적으로 보면 12세기 중엽의 『수ष(곤자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늦지만, 판소리 수궁가로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토끼의 간」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야기 전래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는 단순치 않다.

일례로 1145년에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보면, 제41권 열전 김유신 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선덕대왕 11년(642년) 백제가 신라의 대량주(大梁州)를 함락했을 때 김춘추의 딸 고타소랑(古陀炤娘)이 남편을 따라 죽었다. 이에 분개한 김춘추는 백제를 치기 위해서 고구려에 군사를 청하는 사신으로 가고자하니 왕이 이를 허락했다.

고구려로 들어간 김춘추는 왕에게 환대를 받았지만, 한 신하가 김춘추의 비범함과 그의 목적이 고구려의 정탐에 있음을 간하면서 그를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왕도 태도를 바꾸었다. 그래서 일부러 신라 땅의 두 곳을 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니 김춘추는 듣지 않았다. 왕이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다.

옥에 갇힌 김춘추는 왕이 총애하는 신하 선도해(先道解)에게 청포를 주고 의논하니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는 일찍이 거북과 토끼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가? 옛날 동해 용왕의 딸이 심장을 앓았는데 의원의 말이 토끼의 간을 구해 약으로 쓰면 낫는다고 하였소. 그러나 바다 속에는 토끼가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한 거북이 용왕에게 아뢰기를 자기가 그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한 거요. 그리고 육지로 나와서 토끼를 만나 말하기를, 바다 속에 섬이 하나 있는데 맑은 샘물과 흰 돌 무성한 숲과 맛있는 과일이 있고 추위와 더위도 없

고 매나 새매도 침입하지 못하니 네가 가기만 하면 편히 지내고 아무 근심도 없을 것이라 하고, 이어 토끼를 등에 업고 이삼 리쯤 헤엄쳐 가다가 거북이 토끼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지금 용왕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토끼의 간이 있어야 약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로움을 불구하고 너를 업고 오는 것이라고 하였소. 그 말을 듣고 토끼가, 아아 나는神明(神明)의 자손이라 능히 오장(五臟)을 꺼내 씻어 넣을 수 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속이 좀 불편하여 간을 꺼내 씻어서 잠시 바위 밑에 두었는데 너의 감언을 듣고 바로 왔기 때문에 간이 아직도 그 곳에 있으니 어찌 돌아가서 간을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하면 너는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나는 간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서로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더니, 거북이 그 말을 믿고 다시 돌아갔다. 언덕에 오르자마자 토끼는 풀 속으로 도망치며 거북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리석기도 하지 어찌 간 없이 사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니, 거북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다고 한 것이요.”

이야기를 듣고 김춘추는 그 뜻을 알게 되어, 자신이 귀국하면 신라왕에게 청하여 두 곳의 땅을 고구려에 돌려주겠다는 글월로 고구려왕을 속이고 풀려나게 되었다.⁷⁾

이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토끼의 간」이야기가 전해져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1145년 성립된 『삼국사기(三國史記)』는 『수ष(곤자쿠)』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되었으므로 12세기 중엽에 이미 「토끼의 간」이야기가 양국 문헌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경우는 이야기의 배경이 642년으로 되어 있고, 고구려의 선도해(先道解)가 신라의 김춘추에게 궁지를 벗어나는 계책의 힌트로서 「토끼의 간」이야기를 했을 때 김춘추가 즉시 알아들었다는 것은 고구려 신라를 막론하고 이 이야기가 일찍부터 한반도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大系), 岩波書店, 1984, p.392 의 주석 참조.

7) 金富軾 著,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下)』, 乙酉文化社, 1986, pp.285-294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달 속의 토끼」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토끼의 간」 이야기도 부처의 본생담으로서 여러 불전(佛典)에 실려 있던 이야기이고, 원래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 전해진 것이 석가여래의 본생담으로서의 요소가 탈색되고 점차 내용의 변화를 거치면서 각 나라에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전 설화는 각 나라에 전해지면서 토착화(土着化)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토착화(土着化)는 다시 세속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설화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설화란 전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용을 거치기 마련인데, 그 변용의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대적 지리적 변화에 따른 변용이고, 또 하나는 전승자의 의도에 의한 변용이다. 위의 두 설화의 예를 통해서 보면, 일본에서는 원숭이가 등장하고 한국에서는 토끼가 등장한다든지 이야기의 무대는 인도인데 등장하는 자연환경이나 음식 생산물은 일본적인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자(시대적 지리적 변화에 따른 변용)의 예이고, 원래는 부처의 본생담이었던 불전 설화가 토착화 과정에서 불교적 색채는 탈색되고 세속화된 이야기로 변모하게 된 것은 후자(전승자의 의도)의 예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이야기는 이후 일본에서는 무카시바나시(昔話, 민담 또는 전래동화)로 발전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래되는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개요는 용왕의 딸이 병이 들자 거북은 원숭이의 간을 약으로 쓰기 위해 원숭이를 속여 용궁으로 데려오는데, 용궁을 지키고 있던 수문장 해파리가 이 사실을 무심코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원숭이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원숭이는 간을 육지에 넣어 두었다고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살아 돌아오게 되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용왕은 입을 잘못 놀린 해파리에게 벌을 내려 뼈를 모두 뽑아버리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도 해파리에게는 뼈가 없다고 하며, 해파리에게 뼈가 없는 이유의 근원설화로 발전해 간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수궁가나 전래동화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양국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IV. 노인을 버리는 나라

『今昔(곤자쿠)』 제5권의 마지막 설화인 제32화는 「七十餘人流遣他國國語(칠십이 넘은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 버리는 나라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의 전문 해석과 인용을 통하여 담겨진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옛날 인도에 칠십이 넘은 노인을 다른 나라에 보내 버리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에 대신이 한 사람 있었는데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대신은 아침저녁으로 어머니를 뵙고 극진히 효를 다하면서 지냈는데, 그러는 동안 어머니가 이미 칠십 세가 넘게 되었다. 아침에 뵙고 저녁에 뵙지 못하는 것조차 마음이 불안하여 건디기 어렵거늘 하물며 먼 나라로 보내 버리고 영원히 뵙 수 없다는 것은 더욱 건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 대신은, 집 귀퉁이에 몰래 땅을 파고 방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감추어 두었다. 집안사람들조차 이 일을 몰랐으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말할 나위 없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웃 나라로부터 똑같은 모습을 한 암말 두 마리를 보내오면서 말하기를 “이 두 마리 말의 어미와 자식을 구별하여 표시해 보내라.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군대를 일으켜 칠 일 안에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자 국왕이 대신을 불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대신이 아뢰기를 “이 일은 쉽게 말씀드릴 일이 아니오니 귀가 하여 궁리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우리 감추어둔 어머니는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들으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몰래 어머니가 계시는 방으로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모습을 한 말 두

마리의 어미 자식을 가려내려면 두 마리 말 가운데 풀을 놓아두고 지켜보면 된다. 일어나서 먼저 나아가 먹는 것을 자식이라고 알면 되고 자식이 먹는 것을 내버려두었다가 천천히 먹는 것을 어미라고 알면 된다고 들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대신이 돌아오자 국왕이 “뭔가 생각나는 바가 있소?” 라고 물으셨다. 대신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국왕은 “그것 참 좋은 생각이오.” 라고 하시면서 즉시 풀을 가져오게 하여 두 마리의 말 사이에 두고 보니, 한 마리는 일어나 먹는데 다른 한 마리는 먹고 남긴 풀을 천천히 먹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어미와 자식을 알 수 있게 되어 각각 표시를 해서 돌려보냈다.

그 후 다시 이웃 나라에서 모양을 똑같이 깎은 나무에 옷칠을 해서 보내오면서 “이 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알아내라.” 라고 말했다. 국왕은 다시 이 대신을 불러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묻자 대신은 전과 같이 대답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는 방으로 가서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그것도 아주 쉬운 일이지. 나무를 물에 띄워 보고 약간 가라앉은 쪽을 뿌리라고 알면 된다.” 라고 했다. 대신은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말씀드리자 왕이 즉시 물에 띄워 보시니 조금 가라앉은 쪽이 있었다. 그래서 그 쪽을 뿌리라고 표시해서 보냈다.

그 후 또 코끼리를 보내오면서 “이 코끼리의 무게를 알아오라.” 라고 했다. 이 때 국왕은 ‘이번 일에 답해 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고민하면서 다시 대신을 불러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번 일은 더욱 생각해내기 어려운 일이군.” 하니 대신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다. 이 때 국왕이 생각하기를 ‘이 대신은 내 앞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처럼 집에 가서 생각해 오는 것이 매우 이상하구나. 집에 어떤 일이 있기에 그런가?’ 하고 의심하셨다. 이윽고 대신이 돌아왔다. 국왕은 이번 일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어찌되었는지 물었다. 대신은 “이번 일도 약간 생각나는 바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배에 태우고 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으면서 물이 닿은 선에 먹으로 표시를 해 둡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배에 돌맹이를 주워 넣

습니다. 코끼리가 났을 때 표시해 둔 선까지 물이 이르렀을 때 돌을 하나씩 저울에 달고, 그런 후 돌맹이 무게를 모두 합한 것으로 코끼리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국왕은 이 말을 듣고 대신의 말대로 계산하여 코끼리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써서 돌려보냈다.

상대방 적국은 세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매번 답을 보내오자 매우 감탄하면서 ‘저 나라는 현인(賢人)이 많은 나라이다. 보통 재치 있는 사람이라면 알기 어려운 일들을 이처럼 맞추어 보내오니 현명한 나라에 복수심을 일으켰다가는 오히려 계략에 걸려 침략 당할 것이다. 그러니 서로 존중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품었던 침략하려는 마음을 영원히 버리고 이러한 뜻을 사신이 알려와 좋은 사이가 되었다.

그러자 국왕은 대신을 불러 “이 나라의 치욕을 막고 적국과도 평화롭게 된 것은 그대의 공덕이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오. 그런데 것처럼 지극히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잘 알게 된 것이오?”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대신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으면서 국왕에게 말씀드리길 “이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칠십이 넘은 사람을 다른 나라로 보내 버리는 것이 정해진 법인데 지금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가 칠십이 넘으신 지 올해로 팔 년이 되는데 조석으로 모시기 위해서 몰래 집 안에 흙으로 방을 만들어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은 들은 바가 넓기 때문에 혹시 들어두지 않았을까 생각하여 집에 돌아와 물어보고 가르쳐주신 대로 모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노인이 안 계셨더라면...” 라고 했더니, 국왕은 “어떤 일로 인해서 옛날부터 이 나라에 노인을 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해 보건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러니 먼 곳으로 보내 버린 노인들을 신분의 귀천과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불러 돌아오도록 칙명을 내려야겠다. 또한 노인을 버린다는 나라 이름을 고쳐서 노인을 봉양하는 나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명하셨다. 그 후 나라의 다스림도 평안해지고 백성들도 마음이 편하여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설화 또한 『잡보장경(雜寶藏經)』 『법원주림(法

苑珠林』 『현우경(賢愚經)] 등의 불전에서 유래한다.⁸⁾ 『잡보장경(雜寶藏經)]에는 제1권 제4화에 「기로국연(棄老國緣)」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이야기의 마지막에 기로국(棄老國, 노인을 버리는 나라)에서 양로국(養老國, 노인을 봉양하는 나라)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었다는, 말하자면 국명 연기담의 형식으로 되어있고, 이 설화는 우리나라의 고려장 설화나 일본의 姨捨山(오바스테야마)의 기원 설화이기도 하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내고 해결하는 형식의 이야기를 난제설화(難題說話)라고 하는데 설화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이다. 『수ष(곤자쿠)] 설화에서는 노모(老母)의 기지에 의해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흥미의 포인트가 되고 있어, 앞의 토끼나 원숭이 이야기의 경우처럼 세속설화로써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설화의 원전으로 보이는 『잡보장경(雜寶藏經)]의 경우를 보면 역시 부처의 본생담으로서 전개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잡보장경(雜寶藏經)]에 의하면 대신의 노모(老母)가 노부(老父)로 되어있고 난제를 제시하는 것도 이웃나라 왕이 아니라 천신(天神)이다. 난제의 숫자도 아홉 가지나 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 ① 두 마리 뱀의 암수를 가려내라.
- ② 어떤 사람을 각자(覺者)라 하고 어떤 자를 수자(睡者)라 하는가.
- ③ 커다란 흰 코끼리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 ④ 한 줌 물의 양이 대해(大海)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왜인가.
- ⑤ 어떤 사람을 가장 굶주림에 고통 받는 자라고 하는가.
- ⑥ 어떤 여자를 가장 미인이라고 하는가.
- ⑦ 어떤 사람을 가장 고통이 많은 자라고 하는가.
- ⑧ 앞뒤를 똑같이 깎은 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가려

라.

⑨ 똑같은 모습을 한 두 마리 말의 어미와 자식을 가려라.

이 가운데 2 4 5 6 7번 문제는 불교 교리와 관련된 화두성의 물음이고 1 3 8 9번 문제는 일반적인 경험이나 지혜로 푸는 문제로 말하자면 세속성이 짙은 물음이다. 따라서 일반 민중들에게는 기지와 경험에 의한 세속적인 물음과 해결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불교적인 색채를 털어버리고 세속화된 설화로 의 변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본 설화의 세속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등장인물의 본생(本生)부분, 즉 난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노부(老父)는 지금의 석가모니불이고 아들인 대신은 지금의 사리불(舍利弗), 국왕은 지금의 아자세왕(阿闍世王) 천신(天神)은 지금의 아난(阿難)이라고 전생을 밝힌 부분을 생략해 버림으로서 완벽한 세속화로의 탈바꿈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⁹⁾

한편 이 이야기는 일찍부터 일본에 유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平安(헤이안)시대에 쓰인 일본 수필문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清少納言(세이쇼나곤)의 『枕草子(마쿠라노소시)]에 보면 제227단 「社(야시로와)」의 항목 안에 「蟻通の明神(아리토오시노묘진)」의 유래담으로서 다음과 같은 비슷한 난제설화가 실려 있다.

일본의 어느 천황 시대의 일로, 도읍에 사는 사람이 사십이 되면 죽이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느 귀족이 칠십이 된 부모를 땅속 방에 감추어두고 있었는데, 이웃 중국의 왕이 이 나라를 치기 위해서 우선 어려운 문제를 내어 지혜를 시험하고자 했다. 첫 번째 문제는 위 설화의 8번과 같은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위 설화의 1번과 같은 문제로 똑 같은 모습을 한 두 마리 뱀의 암수를 가리는 문제였는데, 답은 두 마리의 뱀을 늘어놓고 꼬리 쪽에 가는 어린 나뭇가지를 가까이 했을 때 꼬리가 움직이지 않는 쪽을 암컷으로

8) 山田孝雄 외 3인 校注, 『今昔物語集(一)』(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84, p.399의 주석 참조.

9) 國東文麿 全譯注, 『今昔物語集(五)』(講談社學術文庫), 講談社, 1981, pp.347-349의 참고 참조.

알면 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문제는 일곱 번 구불 구불하게 구부러진 구슬의 한가운데가 관통해 있고 좌우에 조그만 입구가 나 있는 것을 보내면서 거기에 끈을 통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해답은 큰 개미를 두 마리쯤 잡아서 허리에 가는 실을 묶고 다시 거기에 좀 더 굵은 실을 연결해서 저 편 입구에 끈을 발라놓으면 된다는 것이었다.¹⁰⁾

이처럼 불전에서 유래한 난제설화가 토착화 과정에서 변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노인을 버린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토착화된 것이 우리의 고려장 설화나 일본의 姨捨山(오바스테야마) 전설이고, 이러한 변용의 과정에는 늙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유교적 덕목과의 접목도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 일본의 대표적 설화집 『今昔(곤자쿠)』의 천축(天竺, 인도)편에 실린 세 편의 불전설화를 중심으로 전래와 변용 과정에 담긴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모두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내용의 설화로,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불전(佛典)과 만나게 되고, 석가모니의 전생담 또는 본생담의 성격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세 설화는 내용면에서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발상이 존재하는데, 어느 나라에 먼저 전해졌는지 전후 관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달 속의 토끼의 경우 일본은 앞에서 확인했듯이 12세기 초에 성립한 『今昔(곤자쿠)』라는 문헌이 전승의 근거가

되지만 한국은 특정 시기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원숭이의 간 설화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의 경우 1145년에 성립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고구려인 선도해(先道解)가 한 이야기가 642년을 배경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 설화가 매우 이른 시기에 한국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일 간에 발상을 공유하는 불전설화의 경우 전래의 전후관계를 불교를 매개로 하여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전해졌고 불교가 전해지면서 불경도 함께 전해졌으므로 불경 안에 실려 있는 이야기도 당연히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전승의 전후관계가 아니라 전승 과정에서 나타난 변용의 의미일 것이다. 설화란 생명력을 지닌 문학이고 역동적인 문학이기 때문에 후대에 전해질 때는 항상 변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위의 달 속의 토끼, 원숭이의 간, 노인을 버리는 나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석가여래가 전생에 자신을 희생하거나 현명한 행동을 한 것이 설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今昔(곤자쿠)』 안에서는 불교적 색채가 탈색되어 전생담(본생담)의 성격은 보이지 않고 세속 설화로서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화의 특성이 그러하듯이 불전(佛典)으로 전해지던 설화 내용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가장 흥미롭고 관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今昔(곤자쿠)』에 수록되는 단계에서는 이미 불전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불전설화의 세속화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0) 松尾聰 永井和子 校註譯, 『枕草子』(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小學館, 1999, pp.361-365

참고문헌

- 長野嘗一 『今昔物語集評論』, 至文堂 1949.
- 平田俊春 『日本古典の成立の研究』, 日本書院 1959.
- 益田勝實 『說話文學と繪卷』, 三一書房 1960.
- 益田勝實 『中世文學の世界』, 巖波書店 1960.
- 山田孝雄 外 『今昔物語集(日本古典文學大系)1~5』, 巖波書店 1954~1962.
- 久松潛一 外 『平安朝文學史』, 明治書院 1965.
- 永積安明 外 『日本文學の古典』, 巖波書店 1966.
- 長野嘗一 『說話文學辭典』, 東京堂 1969.
- 今野達 外 『今昔物語集(日本古典文學全集)1~4』, 小學館 1971~1976.
- 神田秀夫 外 『日本の說話』, 東京美術 1973.
- 池田利夫 『日中比較文學の比較研究』, 笠間書院 1973.
- 境田四郎 外 『改訂増補 日本說話文學索引』 清文堂 1974.
- 志村有弘 『中世說話文學研究序說』, 櫻楓社 1974.
- 片寄正義 『今昔物語集の研究 上・下』, 藝林社 1974.
- 芳賀矢一 纂訂, 『攷證 今昔物語集 天竺震旦部』, 富山房, 1976,
- 日本大辭典刊行會, 『日本國語大辭典』, 小學館, 1980
- 兒玉幸多 外 『古代日本と佛教の傳來』, 雄山閣 1981.
- 国東文麿 全譯注, 『今昔物語集(五)』(講談社學術文庫), 講談社, 1981
- 林雅彦 『日本の繪解き-資料と研究-』, 三彌井書店 1982.
- 原田行造 『中世說話文學の研究』, 櫻楓社 1982.
- 池上洵一 『今昔物語集の世界』, 筑摩書房 1983.
- 久保田淳 外 『研究資料 日本古典文學』, 明治書院 1983.
- 三角洋一 外 『王朝文學史』, 東大出版部 1984.
- 山田孝雄 외 3인 校注, 『今昔物語集(一)』(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84
- 三木紀人 外 『說話文學(研究資料日本古典文學)』, 明治書院 1984.
- 小峯和明 『今昔物語集の形成と構造』, 笠間書院 1985.
- 金富軾 지,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下)』, 乙酉文化社, 1986
- 池上洵一 外 『說話文學の世界』, 世界思想社 1987.
- 廣田哲通 『中世佛教說話の研究』, 勉誠社 1987.
- 松尾聰 永井和子 校柱譯, 『枕草子』(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小學館, 1999

